이번 생 깨닫지 못한다면 어느 생 見性法 만나리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진제 법원 대종사



진리의 옛 바람이 항상 드날리고 있음이여!
바람을 따라서 비가 화(化)해서 앞산을 지나가누나.

바람을 따라 비가 화(化)해서 앞산을 지나간다는 이 말의 뜻을 알 것 같으면,
삼세 제불(三世諸佛)과 역대 조사(歷代祖師)와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의 열반락(涅槃樂)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느 누구라도 나고 죽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금일은 임인년 동안거 결제일이라. 이 삼동구순(三冬九旬) 결제 동안 모여서 안거(安居)를 시작함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사해탈의 대오견성(大悟見性)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들은 이번 안거에는 반드시 대오견성 하겠다는 태산 같은 용맹심과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매일 매일 발심(發心)과 신심(信心)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라.

금생에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어느 생에 견성법(見性法)을 만나리오. 과거생으로부터 부처님 전에 정법(正法)의 인연을 간절하게 세운 자만이 이 견성법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니, 각자 화두를 성성하게 챙겨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사람의 몸을 받기도 어렵고, 사람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佛法)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최상승(最上乘)의 진리를 아는 선지식(善知識)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무엇보다도 어렵고 중요한 것은, 참으로 고준한 진리의 법문을 듣고서 실천에 옮겨 바르게 수행해 나가는 일이다.
그 좋은 법문을 듣고도 행(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 하루 이틀 미루다가 백발이 되고 눈과 귀가 멀어지도록 허송세월하지 말고, 이번 안거에 대신심(大信心)과 대분심(大憤心)으로 용맹정진(勇猛精進)하여 자기사(自己事)를 밝힐 수 있기를 바라노라. 〈하략〉

이 누구인가?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上無片瓦요
下無卓錐라.
日往月來에
不知是誰오 噫라.

위로는 한 조각 기와도 없고
아래로는 송곳 꽂을 데도 없도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알 수 없구나. 이 누구인가? 아! 애닯다.

총림대중이 모여서 임임년 동안거 결재를 하게 되었도다.

삼동결재 동안에 총림대중이 산문 출입을 삼가며 결계를 하고, 포살과 자자를 하며 오직 화두참구의 일념으로 정진하는 수행전통은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바이로다.

화두참구를 하는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를 참구하여 사량분별이 끊어지고 진여의 본성이 확연히 드러날 때, 이를 일 마친 대장부라 하고 능히 공양받을 만한 이라고 하리라.

각자가 맡은 최소한의 소임으로 일을 줄이고 오직 정진에 전념할 때 우리는 불조와 시주의 은혜를 갚고 세간의 희망이 되리라.

天產英靈六尺軀하니
能文能武善經書로다.
一朝識破孃生面하니
方信閑名滿五湖로다.

하늘의 뛰어난 육 척의 몸을 낳으시니
문무에 능하고 경서도 잘 하도다.
하루아침에 본래면목을 깨달으니
바야흐로 부질없는 이름 천하에 가득함을 믿겠노라.

전국 100여 곳의 선원이 11월 8일부터 3개월 동안 일제히 동안거에 들어갔습니다. 200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은 방부를 들인 선원에서 외출을 삼가고 화두를 참구하며 용맹정진합니다. 수좌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는 조계종 종정예하와 총림 방장 스님들의 결제법어도 이어졌습니다. 이를 지면에 정리해 게재합니다. 법어 전문은 인터넷 뉴스(http://www.hyunbulnews.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너는 이다지도 면목이 없느냐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진주보수(鎭州寶壽)가 풍혈연소(風穴延沼) 문하에서 정진할 때 일입니다.
안거에 들어갈 무렵 풍혈선사가 말했습니다.
"본래면목을 나에게 가져 오너라."
이 말씀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면서 이튿날 아침 선지식을 찾아 떠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가지 못하게 말렸고 안거 동안 대중에게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가방화주(街坊化主) 소임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화주를 하기 위해 저자거리로 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말했습니다.
"이득임마무면목(你得恁麼無面目) 너는 이다지도 면목이 없느냐?"
그 말을 듣고서 보수는 그 자리에서 크게 깨쳤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가시나무 숲 속이라고 할지라도 큰 도량에서 앉은 것처럼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또 진흙 속에 뒹굴고 흙탕물 속으로 뛰어 들어온 몸이 더러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행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주보수 선사는 진흙 속에 뒹굴고 흙탕물 속으로 뛰어 들어 온 몸이 더러워지는 홍진(紅塵)속에서도 언제나 애써 정진했기 때문에 "너는 어째서 이다지도 면목이 없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안목이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면목' 이란 결코 누가 묻고 누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오직 헤아림을 넘어설 수 있는 납자라야 한 주먹으로 타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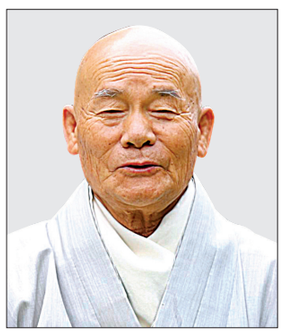
동안거 구십일동안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애써 정진한다면 선방이나 법당이나 공양간이나 운력장이나 포행길이나 모두가 수행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풍혈이 보수를 시정(市井)에 내보낸 까닭을 알게 될 것이요, 홍진(紅塵)에서 들은 '이득임마무면목(你得恁麼無面目) 너는 이다지도 면목이 없느냐?' 한 마디에 깨달음을 얻은 보수와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처처(處處)가 깨달음의 장(場)이 될 것이며 정법안(正法眼)으로 사물과 사물을 대하게 될 것이며 하는 일마다 보살행이 될 것이며 걸음걸음마다 모두 대선정(大禪定) 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시상봉양지식(鬧市相逢兩知識)이여
면목무래태폐력(面目無來太廢力)이라.
분골쇄신미족수(粉骨碎身未足酬)이나
일구요연초백억(一句了然超百億)이로다.

시끄러운 저자거리에서 상봉한 두 선지식이여!
면목도 찾지 못하고 아예 기력마저 사라졌구나.
분골쇄신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족히 갚을 수가 없으나.
한 구절에 환히 깨달으면 백억 배를 초과하여 은혜를 갚으리라.

화두가 분별을 지워주니 언제나 새롭고 친해진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목숨이 호흡 사이다.
자나 깨나 성성한가?
오고 갈 때 한 조각을 이루느냐?
타성일편이 되는가?
이 생멸의 세계 밖에서
이 구슬 뜻대로 구르고 있는가?"
–만공스님 말씀–

야! 이것이다. '마하' 라고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네.
알 수 없다, 이 물건이여! 과연 쉬어지네.

동안거 입방이 결정되고 나니 가다듬어집니다. 안정이 됩니다. 戒香이요, 定香입니다.
벗어난 향기, 知見을 넘어선 향기, 이 향기가 소리 없이 울려 퍼집니다. 이 향기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백억 달마 숨길 터지는 공양입니다. 바다 같은 불법승에 올리는 무량공양입니다.
한 생각 제자리로 오니 만사가 제 궤도로 돌아갑니다. 동안거 정진양식이 흐뭇하게 갖춰졌습니다. 시절이 깊어져 고목에 단풍이 들고 낙엽은 우르르 뿌리로 돌아갑니다. 노승은 추위가 닥치면 잎이 마르듯이 물길이 마르고 핏길이 빡빡해집니다. 흐르는 물이 말랐나, 활활 타는 불이 식었나? 지수화풍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략〉
화두가 분별을 지워주니 언제나 새로워지고 친해집니다. 화두 드는 것이 추위와 친해지는 묘수입니다. 분별을 덮어주는 어둠, 산하대지 굴곡을 다 덮어주는 어둠, 어둠이 분별을 없애줍니다. 어둠이 일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둠은 일체를 분별 전으로 돌려주는 푸근한 모성입니다. 결코 자연이 주는 이 어둠을 놓치지 마십시오. 갑자기 몰아치는 비바람 뇌성벽력도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신바람 나는 조도의 벗이 됩니다. 〈하략〉

물을 건너, 산을 넘어 이 길을 간다.
만산에 단풍인데 이 물건은 세월도 없네!
역력해서 賓主가 떠나고, 요요해서 色空이 끊어졌습니다.
空山에 비바람 잦아 낙엽은 누가 쓰나?
寂寂廖廖無一事 고요해져 일이 없네.
但看心佛自歸依 이~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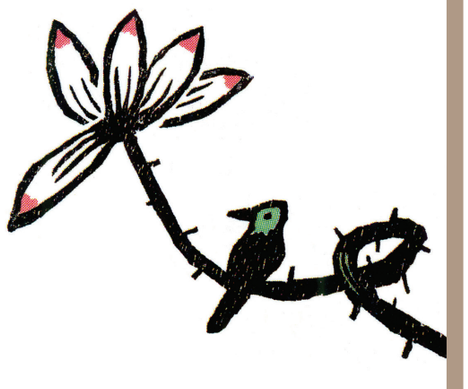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생전예수재 의식" 특강 안내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에서 임인년 11월 2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8주간 생전예수재 의식 특강을 합니다. 관심있는 스님들께서는 어렵게 준비한 특강에 많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개강일 : 11월 26일 (음 11월 3일) 토요일
■시 간 : 오후 3시 ~ 5시까지
■기 간 : 2개월 (매주 토요일)
■강 사 : 이기봉 스님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승교육사, 영산재보존회 연수원장)
■연락처 : 02)392-3234 옥천범음대학 교학처장 박장호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 조고담